

부산시립무용단 제35회 정기공연



# 심청

## “춤으로 피어나는 심청”

고전소설(심청전)을 한국무용으로 쓰는 국내 최초의 현대적 시각으로 재구성시킨 창작무용 '심청' 부산시립국악관현악대와 부산시립합창단이 특별협연하여 춤과 음악이 어우러진 더욱 감동적인 무대가 될 것입니다.

'96.6.14 (금) 19:30

부산문화회관 대강당  
PUSAN CULTURAL CENTER MAIN HALL

· 협찬: 대우전자 (주)



- 안무·구성/이노연 • 훈련지도자/홍기태 • 대본/서국영 • 연출/방태수 • 음악작·편곡/황익중 • 무대미술/종합무대
- 의상/이호준 • 조연출·기획/박소운 • 소품/안정숙 • 무대감독/권택삼 • 음향/정정식 • 조명/신상준 • 무대/이종욱
- 특별협연/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 합창단 • 출연/부산시립무용단 전단원



### 서 국 영

(부산연극학회 회장)

#### • 대본가의 말

#### “살아숨쉬는 우리 춤 무대”

창작무용 <심청>은 한국 무용으로서는 처음으로 고전소설 <심청전>을 극적인 무용 언어로써 재구성하여 그려낸 작품인데, 부모에게 효도하고 착한 일을 하면 마침내 복을 받는다는 교훈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 죽음과 재생이라는 불교적 인과율로 묶어 희비가 엇갈리는 인과의 순환이 마침내 삶의 즐거운 귀결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민족의 고전문학을 우리 춤, 우리 가락으로 살아숨쉬는 현대적인 무대감각으로 풀어냄으로써 새로운 민족의 무대 예술을 이룬 이번 창작무용 <심청>은 그 무용사적 의미가 매우 큰 작품이며 세계 무대로 진출할만한 뛰어난 작품이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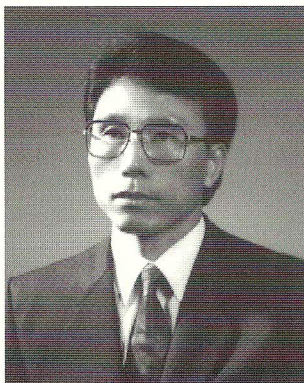
#### • 연출가의 말 “다시 무대라는 현재로 이끌어 내는 일”

<심청전>은 일찌기 오페라, 연극, 창극, 판소리, 발레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형상화되기도 했으나 한국무용으로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작업이라 그 무용예술사적 의의가 크다고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연은 그 의미만큼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은 지극히 연극적 즐거움을 해설이 아닌 무용 언어로 형상화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또 生과 死, 그리고 환생의 과정이 무대라는 현재로 보이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만큼 이번 무용 <심청>에서 연출의 역할이란 바로 고전 작품 내의 이야기를 무용 무대라는 현재로 이끌어 내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서 춤, 음악, 무대, 의상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이 ‘현재’라는 시점을 향하여 함께 어우러져 쓰여졌습니다. 한국 무용이 우리 민족의 고전 문학을 오늘날의 관점으로 무용화시킨 이와 같은 작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 방 태 수

(부산예술전문대 연영과 교수)



### 황 의 종

(부산대 국악과 교수)

#### • 작곡가의 말

#### “춤과 소리는 하나”

예로부터 樂, 歌, 舞 일체라 하였듯이 춤과 소리는 하나입니다. 부산시립무용단의 창작무용 <심청>은 우리의 고전문학을 현대적인 시각에서 우리 춤으로 풀어내는 작품이라 음악에 있어서도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살리고자 했으며 또한 ‘심청’ 이야기의 밝음과 어둠을 빠른 장단과 느린 장단의 대비로 색채지어 보았습니다. 창작무용 <심청>의 무대가 음악의 빛으로 더욱 영롱하게 빛나게 되길 바랍니다.

“음악과 무용은 불가분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음악과 무용은 불가분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특히 국악과 한국무용은 한 자리에 두어야 그 맛이 살아나지요. 해서 늘 함께 무대를 이루고픈 생각은 서로 같음에도 이와 같은 대작의 무대로는 자주 만나지 못하다가 오늘에야 창작무용 <심청>을 계기로 하여 시립예술단의 삼개 단체가 각각의 예술적 특성을 조화시켜 무용을 중심으로 화려한 무대를 이루게 되어 그 감회가 참으로 큼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더 생동감있고 웅장한 무대예술을 감상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무대를 자주 가지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배 양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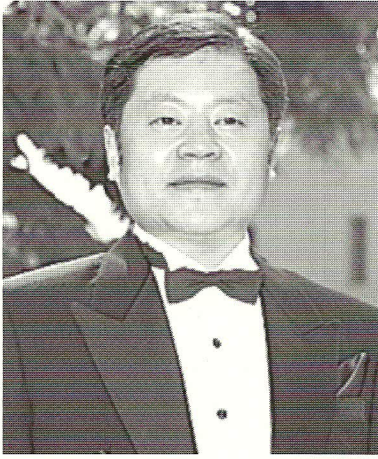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부  
편  
연  
단



■ 출 연

- 악 장/유경조 • 총무/엄익준 • 기획담당/권재고 • 악보담당/강성화 • 악기담당/강성일
- 피 리/박춘석(수석), 최성교(부수석), 이철주, 김용우, 이금섭, 조희대, 주윤정, 서성미, 박영은
- 대 금/이정필(부수석), 강은주, 이현창, 김수일, 이만형, 김부영, 이상욱, 엄익준, 신광훈
- 해 금/조남순(수석), 성기만(부수석), 최윤정, 김민정, 정수경, 허성애, 최유경, 이은주, 하지행
- 아 쟁/권혜정, 이진호, 최희정, 이봉환
- 가야금/경덕애(부수석), 김혜진, 김은주, 오은영, 정미자, 이명일, 옥경화, 송영남, 김혜련
- 거문고/이대하(부수석), 박용란, 엄애리, 안영숙, 박하혜, 강상호, 전해정, 윤선숙
- 타 악/이장우(수석), 최승철, 장미진, 신문범
- 민속악/채수만(수석), 양순주(부수석), 오영환, 김경희, 박성희, 정선희, 전학수, 강미선



**이 상 열**

(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무용·합창·국악의 하모니”

지난해 ‘까르미나 브라나’를 함께 공연한 이후로 되도록이면 시립 예술단 전체가 참가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웅장한 무대를 보여주고자 하던 중 이번 시립무용단의 창작무용 <심청>을 계기로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무용, 합창, 국악의 각기 다른 예술의 하모니가 이번 무용 공연 <심청>을 통해 더 나은 무대예술의 지평을 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부산  
시립  
예술단

■ 출 연

- 트레이너/박광하 • 총무/염요한 • 기획/전상철 • 악보/박종철 • 피아노/천효정, 이승윤, 이수희
- 소프라노/기미현(수석), 유연희(차석), 전귀만, 최난영, 김경희, 홍승연, 안소영, 최선희, 임은영, 이정희, 박현정, 신정순, 남순천, 유수정, 박근혜, 이전미(비상임), 엄남이(비상임)
- 앨 토/손미숙(수석), 김성미(차석), 이정란, 박성혜, 김종순, 김미경, 정은영, 김충경, 강귀리, 제화미, 신소운, 장은경, 배소영, 김윤희, 김경미, 박진희(비상임)
- 테 너/강종철(차석), 한성용, 김진영, 박성환, 이한성, 금석만, 이남일, 김추리, 장진규, 김창돈
- 베 이 스/최영수(차석), 주찬중, 김창학, 최기호, 문동환, 오승중, 박원한, 한동훈, 이연기, 최성규, 이정철, 안재형

**서** 해안 도화동의 심봉사와 곽씨부인은 오랜 지성 끝에 심청을 낳는다. 심청의 탄생이라는 마을 사람들의 기쁜 소문들은 곽씨부인이 이레만에 세상을 떠남으로써 슬픔의 소문으로 바뀐다. 심봉사는 어린 딸을 위해 마을 아낙들에게 젓동냥을 하며 애지중지 기른다.

**심** 청은 자라나자 아버지 대신 동냥을 하고 마을 사람들의 바느질, 빨래, 추수, 키부르기, 새참나르기 등의 잔일을 도와 아버지를 봉양한다. 그러던 어느날, 늦게 돌아오는 딸을 근심하여 길을 나섰던 심봉사는 개울에 빠지게 되고 마침 지나가던 봉운사 화주승이 구해주게 된다. 화주승이 공양미 삼백석만 내면 눈을 뜰 수 있다고 하자 자신의 눈뿔을 한탄하던 심봉사는 앞뒤 생각없이 덜씩 자신의 이름을 올리게 한다. 그러나 이내 곧, 자신의 경솔함을 깨닫고 걱정에 사로잡힌다. 이를 안 심청은 아버지를 위로하지만 돈을 구할 길이 없어 실의에 빠져 있을 때 도화동에 남경상인들이 나타나 15세 처녀를 구하러 다닌다. 심청은 아버지를 위해 팔리기로 결심하고 자청해 나선다. 심청이 떠나는 날, 심봉사와 심청은 애절한 이별을 하고 심청은 폭풍우 이는 인당수에 심봉사의 개안을 빌며 몸을 던진다.

**심** 청의 지극한 효심에 감동한 옥황상제의 명으로 바다 속에선 이미 심청을 기다리고 있다가 심청의 소원에 따라 다시 지상으로 환생시켜준다. 연꽃 속에서 환생한 심청은 임금을 만나 왕비가 되고 아버지 심봉사를 그리워하는 심청의 소원에 따라 임금은 맹인 잔치를 벌이게 된다. 맹인잔치에 참석한 심봉사는 심청을 다시 만나게 된 기쁨으로 눈을 뜨게 되고 이 때 그 자리의 모든 맹인은 더불어 눈을 뜨게 되고 모든 사람들은 기쁨의 잔치를 벌이게 된다.

## 1 부

1. 심청의 탄생/태동의 춤
2. 소문의 물결, 그 기쁨과 슬픔/향발춤, 저승사자의 춤
3. 딸을 위하여/다님길춤, 젓동냥춤
4. 아버지를 위하여/바느질춤, 빨래춤, 추수춤, 키부르기춤, 새참나르기춤
5. 심청을 찾아서/개울춤
6. 공양미 삼백석/화주승의 춤
7. 15세 처녀를 사요/남경 상인의 춤
8. 이별/한(恨)의 춤
9. 폭풍우 이는 인당수/바라춤, 깃발춤, 북춤, 파도춤
10. 아버지, 부디 눈을 뜨세요/기원의 춤

## 2 부

11. 신비한 용궁/해초춤, 물고기춤, 거북이춤, 물뱀춤, 말미잘춤
12. 하늘의 감동/그리움의 춤
13. 환생/포구락, 임금의 춤
14. 사랑, 사랑, 내사랑/한삼춤
15. 그리운 아버지/정(情)의 춤
16. 맹인들의 행진/지팡이춤, 쓰개치마춤
17. 내 딸, 심청아/개안의 춤
18. 효는 빛이 되어(피나레)/잔치춤, 멋과 흥춤